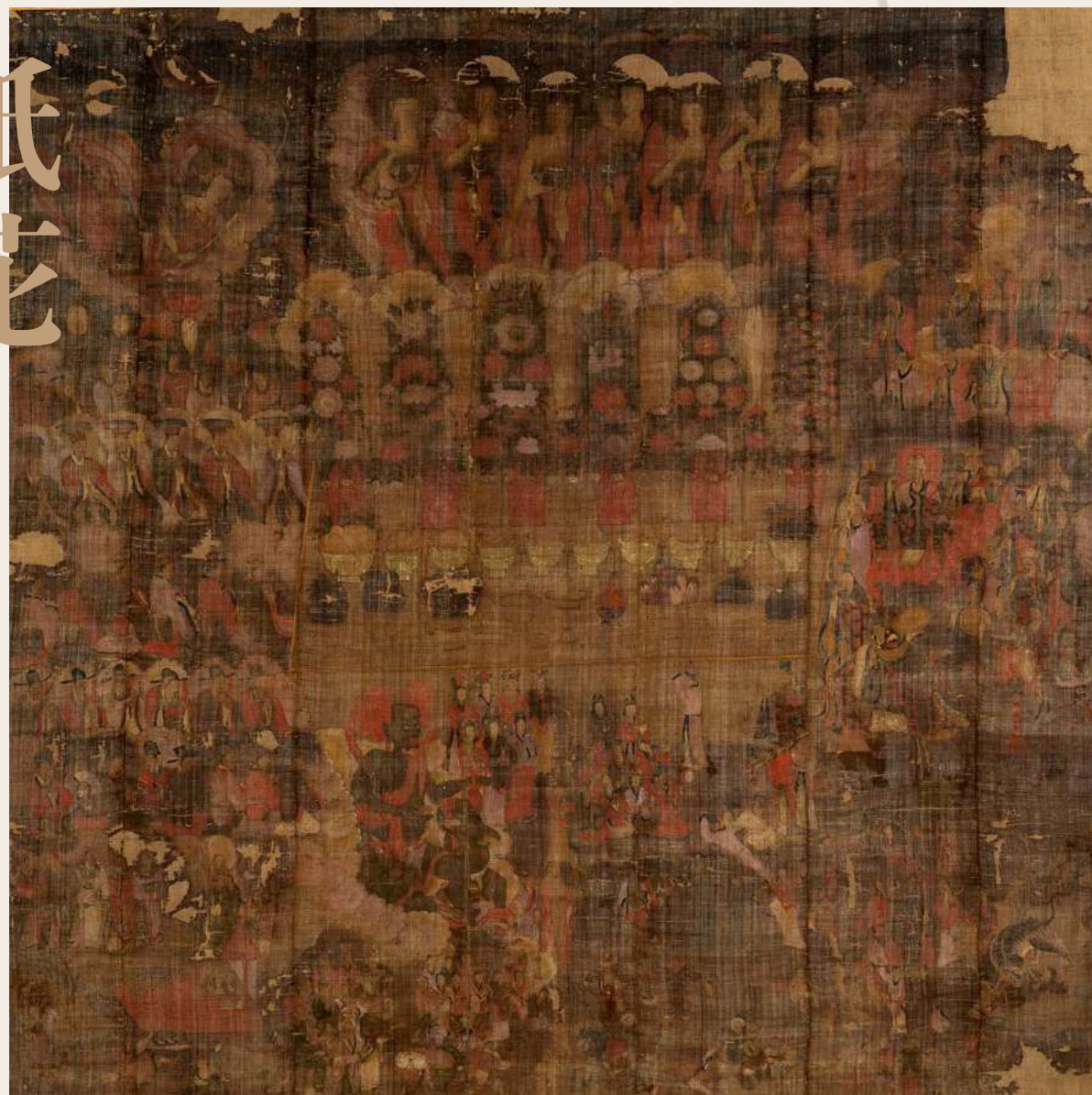


第2回 16世紀 朝鮮時代 甘露幀畫 再現

正明스님 個人特別招待展

# 紙花

• 손끝에서 피어나는 화장장엄의 세계





第2回 16世紀 朝鮮時代 甘露頓畫 再現

## 正明스님 個人特別招待展





# 紙花

손끝에서 피어나는  
화장장엄의 세계



## 正明스님 個人特別招待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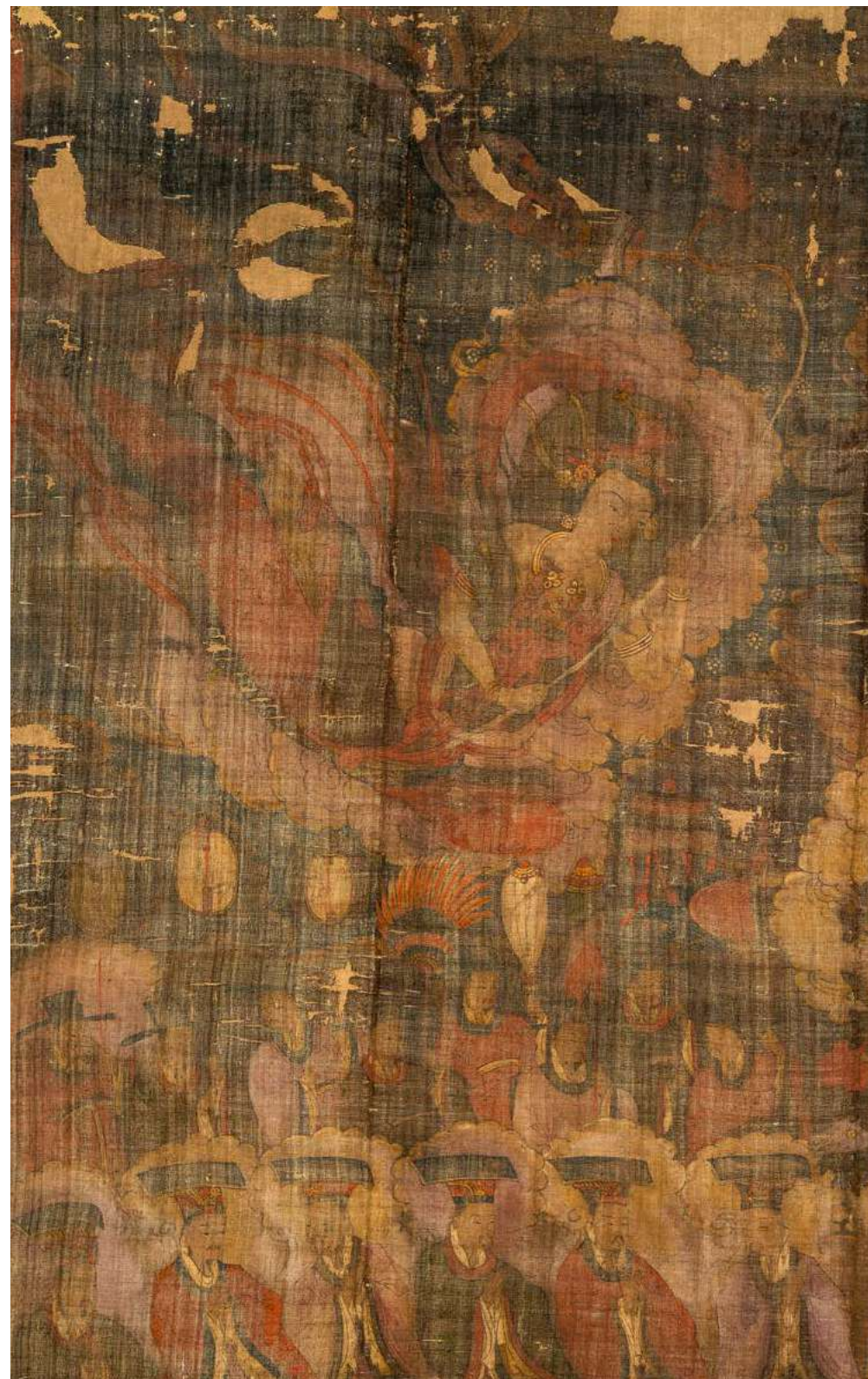
第2回  
16世紀 朝鮮時代 甘露傾畫 再現

### 전시

주 최 대한불교조계종 연화세계  
후 원 서울특별시, 불교지화장엄전승회  
협 찬 연화공덕장엄회, 황희우리웃, 고려공예,  
Cotto Mano 도예공방  
일 시 2017. 3. 23~26  
장 소 서울 무역전시컨벤션센터 SETEC

### 세미나

주 최 대한불교조계종 연화세계  
후 원 서울특별시, 불교지화장엄전승회  
일 시 2017. 3. 24  
장 소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





# 紙花

## 목차



치사	격려사	축사	인사말	약력	감로탱화 재현	재현장엄	
08	09	10	11	12	16	26	
최대장엄		인도상지 꽃과 나무		현대장엄			
30		36				39	



## 치사

따스한 햇볕과 싱그러운 바람이 만물을 움트게 하는 생명의 계절입니다. 이렇게 좋은 절기에 감로탱화의 지화장엄(紙花莊嚴)을 재현하고, 많은 시민에게 감동과 행복을 나누는 진력에 치하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불교 전통지화의 맥을 이어 온 정명스님의 오랜 헌신으로, 전통문화에 배어있는 선대(先代)의 수승(殊勝)함을 친절하게 만나는 향기로운 시간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로탱화는 전법의 역사와 민중의 삶, 그리고 예술성이 조화롭게 담겨있으며, 시대마다의 사회 문화적 흐름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고귀한 자료입니다. 더불어 생화(生花)를 대신하는 지화가 아니라, 자체의 특별함으로 충분히 예술적이며 종교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로써 감로탱화의 지화장엄은 당시 사회에서 지화공예가 갖는 가치와 위상이 어떠했는지를 알려주는 소중한 사료이기도 합니다.

일찍이 영산재나 수륙재 등, 여러 재가 있을 때면 지화를 공양하여 장엄하였습니다. 재를 올리는 마지막에 지화를 소지(燒紙)하여 그 마음이 승화하고 복과 덕으로 망자의 해탈을 기원한 간절함은, 청결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지화를 조성하는 커다란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미혹의 세계를 벗어나는 그 경계에서 삶의 인연을 성찰하게 하는 각별한 정진의 마음이기도 할 것입니다.

고귀하고 숭고하면서도 간절한 염원이 생동하는 작품을 통해, 많은 대중들이 지화가 함의하는 무량한 의미와 아름다움을 알아가는 뜻 깊은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지극한 정성이 있으면 다가오는 행복을 내다볼 수 있듯이, 일생의 정진을 담아내고 일념의 정성을 다하신 정명스님의 성취가 많은 분들이 행복을 찾아가는데 소중한 안내자가 되어 주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61년 3월 23 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 격려사



심 우 성 (민속학자)

「감로탱화(甘露幀畫) 전시회」,  
끝없이 여시는  
「정명스님」,  
놀랍고도 반갑습니다!

「정명스님이시여!」

「불교지화(佛敎紙花)」의  
예술적 아름다움  
끝없이 키워가고 있으신 아름다움,  
참으로 놀랍습니다.

「불교지화(佛敎紙花)」는  
종이로 오린 「꽃」 이면서  
「불국정도」를 장엄한  
「신화(信花)」이기도 합니다.

「불교지화장엄전승회」를  
계속하여 이끌고 계신  
「정명회장」 이시여!  
참으로 큰 일 하시는 군요.

모쪼록, 이 전시회가  
「불교전통지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큰 「길뚝」이 되시길  
소망하는 바입니다.

「甘露幀畫 세계」 만만세 하옵소서!

沈雨晟 올림







## 축사

삼월이 되면 강남으로 떠났던 제비가 다시 찾아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봄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은 쌀쌀한 기운이 감도네요. 그런데 이곳에 와보니 정명스님의 아름다운 꽃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제11회 불교박람회가 해가 거듭될수록 우리나라 불교용품이 이토록 풍성하고 멋진 작품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리가 되어가고 있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정명스님께서 500년 전 탕화속의 지화를 섬세하고 장엄하게 재현한 전시회가 함께 개최되어 더 큰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 한 길을 걸어오신 장인들의 귀중한 작품과 우리 불교를 더욱 빛내주며 산업으로 이어져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박람회장 안에는 귀중한 법문을 들을 수 있는 자리도 있고,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먹거리도 풍성하여 우리를 즐겁게 해주니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고맙습니다.

이토록 훌륭한 박람회를 개최하시느라 불철주야 애쓰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인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더 멋진 박람회를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박람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김 경 자  
(서울시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당)

## 인사말



먼저 2017년 서울국제 불교박람회 주제전 16세기 감로탱화 재현 특별초대전을 개최할 수 있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전시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서울시의원 김정자님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 이 행사가 개최되기 까지 도와주신 불교박람회 관계자 여러분과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불교지화장엄전승회 운영위원회 회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이번 전시에 재현된 감로탱화는 일본 교토 류관사龍岸寺에 봉안하고 있던 것을 주지 ‘에지마 고도’가 자발적인 의사로 기증하여 400년 만에 국립중앙박물관으로 2010년에 돌아온 16세기 조선시대 감로탱화입니다. 하나의 재단 위에 모란, 작약, 국화, 다리화, 연화가 모두 올라가 있고, 고임새 상화에 꽃이 층층무진인 세계를 연상케 하는 아름다움에 재현하면서 감동했습니다. 또 어산상에 화병입구의 모양이 음양의 조화를 맞추고자 고심한 흔적이 엿보이는 보기 드문 소중한 감로탱화이며, 방자유기공양기에 금으로 개금한 것에서부터 모든 불기 공양, 장엄 물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지화 만들기는 한지를 재단하고 자연 염색하여 살을 잡고 작봉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과정으로 만드는 지화는 복잡한 세상일을 다 잊고 한 송이 한 송이 만들다 보면 생각이 끊어지고 무명의 잡초가 없는 화장장엄세계가 눈앞에 나타날 때 무한한 지혜를 동반하기에 그대로가 반야바라밀의 체험과 수행이 됩니다. 그러므로 완성되는 지화는 수행의 결정이 되어 어둡고 거친 사바세계를 넘어 불국토의 이상을 실현하게 됩니다.

불교전통문화인 지화를 통해 우리 삶에 불 국토 장엄을 만들어 가는 기쁨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생화로 대체되어 지화의 명맥이 사라진 가운데 전통지화에 관한 복원과 전수, 가치정립을 위한 무단한 연구 활동을 위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기쁨이 한층 더한 것 같아 매우 행복합니다.

끝으로 불교에 지화는 공화供華로써 이 세상 모두에게 아름다운 감사의 마음을 담아 꽃으로 전달되는 숭고한 의미를 되새기며 조선시대 감로탱화재현으로 함께 동참하신 사부대중 연화공덕장엄회 운영위원회 모두 불,보살의 가피가 가득하시길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61년 3월 23일  
불교지화장엄전승회 회장 정명



## 약력

2016년 대한민국 대한명인 제16-464호 불교지화  
2016년 동국대학교 석사 졸업  
2011년~(現) 불교지화장엄전승회 회장  
2009년~(現) 연등회 장엄도감 및 장엄연구회 상임연구 위원  
1986년 대한불교조계종 천고사 보운스님으로부터 지화장엄기술 전수

## 전시·세미나

2017년 제2회 조선시대 감로탱화재현 특별초대전 학술세미나 ‘불교지화 장엄의 재조명’ 개최  
2016년 1580년 조선시대 감로탱화 재현전  
2015년 불교지화장엄 개인전  
2015년 제2회 학술세미나 ‘전통불교지화 전승양상과 문화재적 가치’ 개최  
2014년 제3회 불교지화장엄전승회 회원전 ‘꽃, 자연으로 물들다’ 개최  
2013년 제2회 불교지화장엄전승회 회원전 ‘염화미소’ 개최  
2013년 제1회 학술세미나 ‘불교지화장엄의 세계와 전승현황’ 개최  
2012년 제1회 불교지화장엄전승회 회원전 ‘깨달음의 꽃’ 개최  
2011년 불교지화장엄전승회 창립전 ‘종이로 피어나다’ 개최

## 행사·교육

2016년~(現) 전통지화 봉은사 교육  
2015년 조계사 수륙무차대회, 생전예수재 지화장엄  
2015년 불교박람회 불교지화 전시 및 체험행사  
2015년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 불교지화교육 강의  
2014년~2017년 2월까지 전통지화 조계사 교육  
2013년~(現) 승려연수교육 인증 강습회 주관  
2012년~(現) 연등회 지화 제작 전수교육실시  
2010년~(現) 전통등과 전통지화 교육(연등회)  
2000년 큰스님(서암,정대,승산,정일,일봉,대은,지관스님) 다비식에 지화장엄  
1995년~1997년 불교 케이블TV ‘정명스님의 향기 있는 꽃꽂이’ 방송  
1995년~1997년~(現) 불교 육법공양연구회 지도  
1995년~1997년 MBC 문화체육관 만등만화 육법공양 대법회 개최







正明스님  
個人特別招待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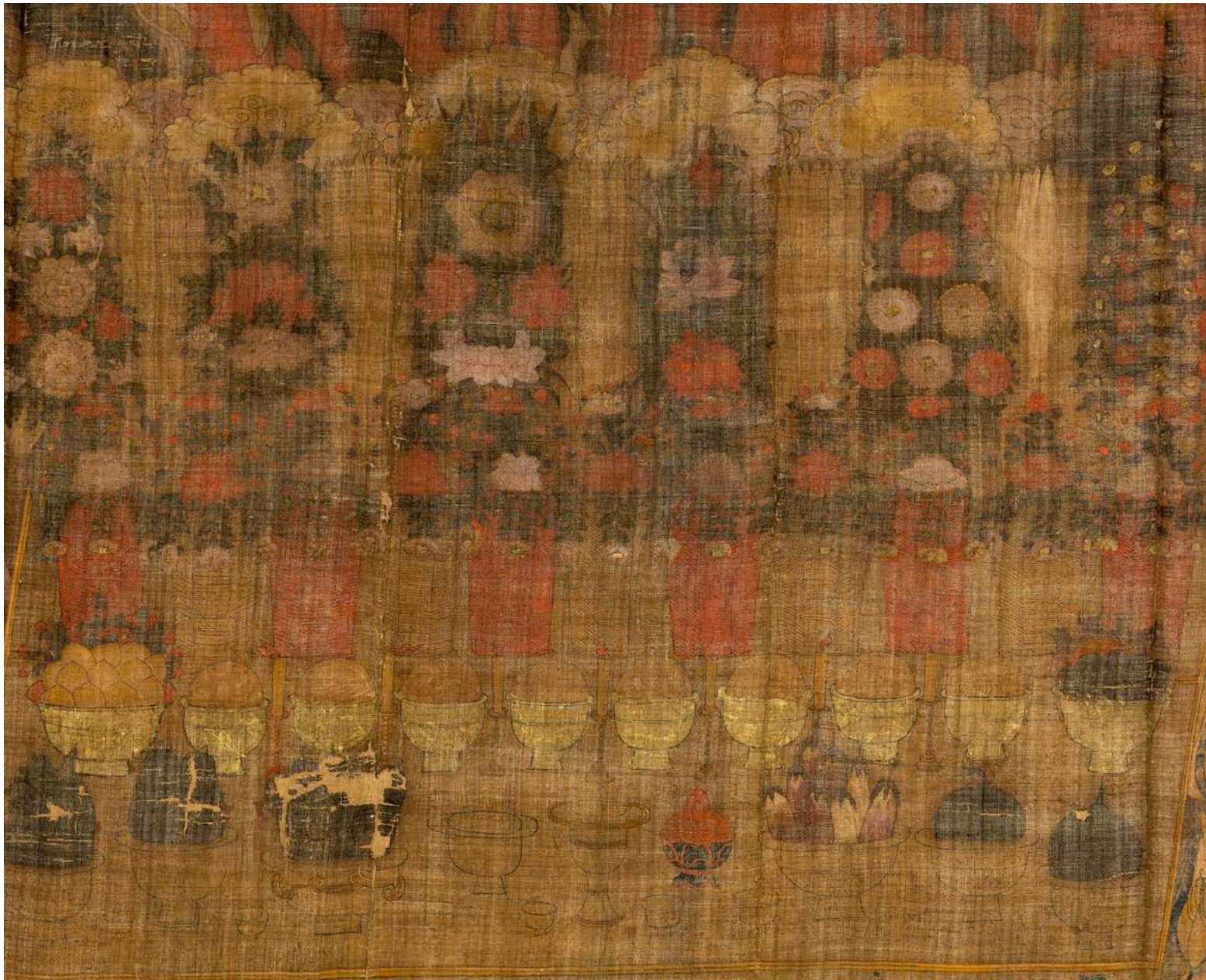




16세기 조선시대 감로탱화 —●—

— 16세기 조선시대 감로탱화는 부처의 수제자인 목련존자가 아귀도에서 먹지 못하는 고통에 빠진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의식을 베푸는 장면을 그린 감로도 (甘露圖)로, 전체 크기 322×281cm, 화면 크기 240×245cm에 이른다.





중앙재단



감로탱화 재현

— 이 감로탱화 중단에 배설된 공양물과 유기방자불기는 우리나라 역사상 이 보다 더 장엄한 감로탱화는 보기 어렵고 육법공양 중에 최고의 법식을 전달하는 소중한 자료라고 생각되어진다.





감로탱화 1열

1열에는 긴 수박과 오이 그리고 가지와 박을 좌우로 올리고 가운데는 다기, 향로, 향합을 놓았다. 자세히 보면 수박은 잎이 그대로 달린 채로 올렸는데 싱싱한 느낌이 든다.



감로탱화 2열

2열에 불기10개는 다른 감로탱화에서 볼 수 없는 관심부분이고 특이한 점이다. 이 공양 단에서 다른 불기와 다르게 개금을 한 것은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아 최고의 정성으로 공양 받을 대상(불, 보살, 신중과 아귀, 영가)모두에게 법식으로 전하는 것이다.

감로탱화의 중단 배설 및 물품에는 총 4열로 육법공양(향, 등, 다, 화, 과, 미)이 올려져있다.



감로탱화 3열

3열에도 또한 다른 감로탱화에서 볼 수 없는 꽃장엄이다. 고임새 같은 공양물을 꽃 색과 같이 빨간색 흰색이 번갈아가며 배열하고 바로 위에 대 중 소 모란을 빨간색 흰색이 번갈아가며 배열하였는데 빨강 고임새 위에는 흰색 꽃, 흰색 고임새 위에는 빨간 꽃이 놓여, 색의 조화를 볼 수 있다. 꽃 크기에 있어 중앙의 모란은 대, 위에는 중, 아래는 소로 만들고 좌우로 잔잔한 작은 꽃을 아름답고 우아하게 꽃았는데, 이는 마치 극락세계의 보주가 제망중중 무진의 세계 그물처럼 아름답게 장엄하였다.



감로탱화 4열

4열에는 준화6점이 장엄되었다. 왼쪽부터 작약, 모란, 연꽃, 연꽃, 다리와, 국화 보통 법당재단은 삼단으로 나뉘어 상단은 모란과 작약, 중단은 다리화 국화, 하단은 연화를 장엄하지만 이 재단은 하나인 관계로 다섯 가지 꽃이 모두 배치되어 장엄되었다. 그리고 준화와 준화 사이에는 지심紙心이 놓여있다.



감로 탕화 4열



재단 작약

110cm X 210cm



재단 모란

90cm X 190cm

감로 탕화 4열



연화 좌측

90cm X 190cm



연화 우측

90cm X 190cm



감로탱화 4열



재단 다리화

100cm X 200cm



재단 국화

90cm X 215cm



어산상



어산상

- 이 감로탱화 어산상에는 꽃병 입구도 좌측은 음으로 우측은 양으로 병에 선을 친 것도 다르게 만들었다.
- 꽃도 중단에 모란을 빨간색과 흰색으로 다르게 한 것이 새롭다. 다른 감로탱화에서 볼 수 없는 부분이다.





관경변상도

60cm X 50cm

— 관경변상도(觀經變相圖)재현  
-1300년경 일본서복사소장-  
水生花圖(연화, 수초화), 野生  
花圖(모란, 작약)



관경변상도 좌측



관경변상도 중앙



관경변상도 우측





송광사 대웅전

— 조선고적도보 송광사 대웅전  
상단지화 재현 (모란, 국화)



송광사 모란  
60cm X 88cm

송광사 국화  
60cm X 100cm



감로탱화

— 직지사감로탱화재현 - 연화화  
생(蓮華化生)-



감로탱화 연화  
100cm X 100cm





상단 백련장엄  
75cm X 100cm



상단 홍련장엄  
70cm X 120cm





상단 모란장엄 —●—  
80cm X 100cm



신중단 국화장엄 —●—  
45cm X 97cm



## 하단장엄



연지단

160cm X 50cm

영정장엄

70cm X 120cm



위패장엄

50cm X 54cm

## 영단장엄



연화장엄

55cm X 95cm





바라  
40cm X 64cm



만다라  
30cm X 70cm



무우수  
70cm X 175cm





보리수 ————— ●  
60cm X 85cm



사라수 ————— ●  
70cm X 110cm

## 05

## 현대장엄





복화(福花)



금화 노랑

14cm X 40cm



금화 주황

20cm X 33cm



금화 파랑

20cm X 20cm



금화

12cm X 43cm



복화

50cm X 69cm



붓꽃

90cm X 190cm



꽃밭 (개나리, 복화, 홍도화)

60cm X 90cm



연무화(蓮舞花)

50cm X 30cm





만행화(萬行花) —●  
36cm X 25cm



진달래 —●  
90cm X 75cm



연화장(蓮華藏) —●  
80cm X 100cm



第2回 16世紀 朝鮮時代 甘露幀畫 再現  
正明스님 個人特別招待展

발 행 일 불기 2561년 3월 23  
포 토 최배문 —●







正明스님



個人特別招待展

